## A Study on the Surrealistic Characteristics in Contemporary Hat Design

Eun-Sil Kim\* · Soo-Jeong Ba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 ha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shion accessories since it is powerful much enough to improve or destroy wearer's image.

Furthermore, since a head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our body and the object of attracting public gaze, a hat worn on the head is more striking and important than any other fashion items.<sup>1)</sup>

In these modern days, with the reinforcement of hat's decoration rather than its functionality, the trend of expressing individuality through hats is remarkable. Such a trend leads to create a various forms of surrealistic hats by many designers, especially, from Elsa Schiaparelli, Jean Lanvin, and Jean Patou to Stephen Johns and Philip Treacy in a recent date via Karl Lagerfield and John Galliano.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hat design by analyzing hat design with focus on haute couture designers' works and examining surrealistic characteristics.

The scope of this study was 1990~2003. For methods, fashion-related books, the works of designers, magazines including Mode et Mode, Ellè, and Vogue, and Internet site(www.firstview.com) were used to analyze surrea-

listic characteristics of hat desig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urrealistic hat design was characterized by change in scale. For example, hats miniaturized by reducing scale. It may correspond to the principle of surrealism that pursues non-realism by miniaturizing all kinds of objects.

Secondly, there was conceptual bipolority that showed a hat form inspired from nature or objects. In other words, by puting into a completely different place from attribution, conceptual bipolority was seen. For example, a shell hat, eye hat, lip hat, spoon hat, the bow hat, or wing of a helicopter-shaped hat.

Finally, there was dual image, also called trompe-l'oeil, that wearer's face showed up as a quite different form through hats. It's examples could be found in wearing animal-shaped hats such as fish or tiger.

In conclusion, the surrealistic characteristics of hats in modern fashion seems to express human's desire to escape from reality through hats.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presentation of hat design in future fashion.

Susie Hopkins (1999). The century of hats: headturning style of the twentieth century. London: Aurum, p. 9.

## 현대패션에 나타난 모자의 초현실적 특성에 관한 연구

김은실\*·배수정

전남대학교\* · 전남대학교

모자는 가장 중요한 패션 액세서리이다. 그 것은 착용자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머리는 우리의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시선이 머무는 대상이기에 이러한 머리에 착용하는 모자 또한 다른 어떤 패션 아이템보다도 눈에 더 잘 띄고 중요한 것이다.1)

현대에 들어와 모자의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장식적인 측면이 강화되면서, 모자를 통해 개성을 표현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다양한 형태의 모자를 창조했으며,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엘자스키아빠렐리(Elsa Schiaparelli), 장 랑방(Jean Lanvin), 장 파뚜(Jean Patou)를 시점으로 칼라거필드(Karl Lagerfield),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를 거쳐 최근에는 스테판 존스(Stephen Johns), 필립 트레이시(Philip Treacy)까지 많은 디자이너들은 다양한 형태의 초현실적인 모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모자디자인을 중요 시하는 오띄꾸띄르 디자이너의 작품을 중심으로 모자디자인을 분석하여, 초현실적 특성을 규명 함으로써 앞으로의 모자디자인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범위는 1990-2003년까지로, 연구 방법은 패션관련 서적과 디자이너 작품집, 모드(Mode et Mode), 엘르(Elle), 보그(Vogue)와 같은 패션 잡지, 그밖에 인터넷 사이트(www.firstvicw.com) 등을 중심으로 모자디자인 중에서 초현실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개념적 양의성(Conceptual bipolority) 으로서 자연물이나 사물에 영감을 받은 모자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 속성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곳에 놓음으로써 개념적으로 이중 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히 조가비의 형 태, 눈의 형태, 입술형태, 숟가락형태, 뱃머리형 태, 헬리콥터 날개모양의 모자의 형태들에서 예 로 볼 수 있다.

셋째, 이중적인 이미지(double image)로 이는 트롱쁘 뢰이유(trompe-l'oeil:눈속임)로서, 모자를 통해 착용자의 얼굴을 전혀 다른 형태의모습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로서물고기나 호랑이 등의 동물 형상의 모자를 착용함으로써 착용자의 얼굴의 이미지를 다른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상을 살펴본 결과, 현대패션에 나타난 모자의 초현실적인 특징은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모자를 통해 표현해낸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미래패션에서 모자디자인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현실적 모자디자인의 특징으로 크기의 변화(Change in Scale)가 있는데, 이는 규모를 축소하여 소형화한 모자의 예들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모든 사물을 초소형화 시킴으로써 비현실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초현실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에 부합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Susie Hopkins (1999). The century of hats: headturning style of the twentieth century. London: Aurum, p. 9.